

#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 허와 실



홍경안

시시일각

19일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5년간 예술인 복지정책의 전망과 정책 방향을 담은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에는 ‘자유로운 예술활동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비롯한 ‘예술 활동의 지속을 위한 안정적 삶의 기반 조성’ 등 4개 전략, 13개 세부 과제가 실렸다.

먼저 예술인 복지정책 대상자 확인 제도인 ‘예술활동증명제도’가 ‘예술활동확인제도’로 바뀐다. 다소 딱딱한 ‘증명’이라는 단어 대신 ‘확인’이라는 표현을 쓰기로 했다. 절차도 간소화된다.

지금까진 ‘예술활동증명’을 3년 혹은 5년마다 갱신해야 했다면 앞으로 5년으로 일원화한다. 20년 이상 예술활동증명 유지 예술인에 대해서 재신청을 면제하고, 본인경력을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단계별 이행을 도입한다.

예술인복지법상의 ‘예술인’에 대한 정의도 개정해 ‘예술인’과 ‘예술활동확인예

술인’으로 대상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나아가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처리 기관을 지역문화재단 등으로 분산하고, 예술인 복지정책 전담 조직 역량 강화 차원에서 예술인복지재단의 조직 개편(2부 8팀)이 진행된다. 미약하나마 열악성을 면치 못했던 복지재단 직원 처우 개선도 이뤄진다. 다만 올해는 새로운 제도 도입을 위한 과도기로, 예술인복지법을 개정하거나 절차 간소화에 역점을 둔다. 유형별 세부방안은 내년부터 이뤄진다.

쟁점 역시 남아 있다. 예술인복지법상의 ‘예술인의 정의’의 경우 ‘예술인’과 ‘예술활동확인예술인’ 간 구분은 어떻게, 어떤 지표와 방식으로 할 것인지, 현행 예술활동증명에 있어 생활예술인과 하이아마 주어들들 차단할 방안은 무엇인지 등이 대 표적이다. 다양하고 폭넓은 예비·신진 예술인과 상대적으로 협소한 중견 예술인 간 지원 불균형은 해결해야 할 숙제다.

이 가운데 생활예술인들의 진입은 심각한 문제로 꼽힌다. 취미나 여가로 활동하는 이들이 흘러들어오면서 한정된 복지 예산의 ‘누수’를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취미 인구의 유입은 예술인복지법 입제 취

지와도 어긋난다. 예술인복지법은 예술을 업(業)으로 삼는 전문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전문예술인의 창작활동 증진과 예술 발전을 목적으로 2012년 제정됐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해화동 더부살이 청산 및 직원 업무 능력과 조직 기여도에 비례한 보상체계구축 등은 문제부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사안이다. 그래야 한국 예술인 복지를 총괄하는 위상에 걸맞고, 예술인들에게 돌아갈 행정능률 향상도가 가능해진다.

특히 지난해 5월 예술활동 증명 발급처를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통과가 불발되면 업무 분담은 요원해진다는 점에서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한 차선책도 필요해 보인다. 지역문화재단이 증명 업무를 맡기 위해서는 예술인복지법 개정이 필수다.

하나 예술인복지 관련 제도를 제아무리 잘 정비하든 예술을 통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이번 계획의 핵심 중 하나인 ‘자유로운 예술활동’ 또한 표현의 자유를 전제로 할 때 비로소 가치를 얻을 수 있다.

/미술평론가

## ‘연금개혁’, 진정성으로 국민 설득해야



박태훈

〈정치경제부〉

“학생들의 부모님 세대는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것이 확실히 이익이었지만 학생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대학 시절, 전공수업이었던 ‘복지정책론’을 강의하던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학생들은 90년대 생이 대부분이었다. 당시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숨이 막혔던 기억이 났다. ‘국민연금은 취업과 동시에 의무 가입되지 않나’라는 생각과 함께...

그도 그럴것이 국민연금이 처음 도입된 1988년에 납부를 시작한 사람은 만기를 채울 시 70%의 소득대체율(근로기간동안의 소득 대비 퇴직 후 연금으로 받는 액수의 비율)을 받을 수 있다. 도입 당시 가입 유

인을 확보하기 위해 소득대체율을 후하게 설정한 면도 있었다.

이후 노무현 정부에서 통과된 연금개혁안을 보면, 보험료율은 9%(근로자와 사용자가 반반씩 부담)로 유지하고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40%까지 낮아지도록 설계했다. 소득대체율이 제도 도입 당시보다 30%포인트가 떨어지고 기금도 2057년(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에 고갈된다고 하니 교수님의 말씀이 이해도 간다.

지난 2019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도출한 국민연금 개혁안 다수안은 소득대체율을 현 40%에서 45%로 올리고 보험료율을 현 9%에서 12%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다만, 사용자 측의 반발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다시 교수님의 말씀을 생각해보면, “이제 학생들은 큰일 났으니, 노후를 대비해서 국민연금 이외에 여러 방법을 강구하라”쯤으로 받아들여야 할 듯하다.

하지만 지금 행정부와 국회의 논의는 주로 기금 소진에 앞서 재정안정을 위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얼마나 조정하느냐는 ‘모수개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4대 직역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사적연금 개혁을 통한 노후 보장 시스템의 공고화는 장기적 과제로 남겨두려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 연금특위 산하 민간 자문위원회는 복수의 연금개혁안을 만들어 특위에 제출 및 논의하고 500명으로 구성할 국민의견수렴기구의 논의를 거쳐 올해 안에 개혁안을 통과시킬 구상이다. ‘속전속결’로 처리하기엔 ‘모수개혁’이 근본적인 노후 소득 보장 체계를 개혁하는 ‘구조개혁’보다 매력적일 것이다. 결국은 정치다. 남은 시간 아래, 정당은 이해관계자와의 숙의와 토론을 통해 국민을 위한 연금개혁안을 만들어 설득에 나서야 한다.

/pth7285@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문제풀이방법**  
4X3 스도쿠는 가로,세로,4X3박스 1부터9 ABC의 문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부동호 스도쿠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9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하루에 한 장 기적의 두뇌퍼즐  
**사물라이스도쿠**  
손호성 저 | 스도쿠65 | 10,000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9 |   | 6 |   |   |
|   | 8 |   | 2 |   |   |   | 5 |   |
|   | 1 |   | 8 |   | 4 |   |   |   |
| 3 |   |   |   |   |   |   |   | 7 |
| 8 | 5 |   |   |   | 2 | 3 |   |   |
| 7 |   |   |   |   |   |   |   |   |
| 4 |   |   | 9 |   | 6 | 8 |   |   |
|   | 3 | 8 | 5 | 2 |   |   |   |   |

|   |   |   |   |   |   |  |   |   |
|---|---|---|---|---|---|--|---|---|
|   |   |   |   | 1 |   |  |   | 5 |
| 5 | 7 |   |   |   |   |  | 1 |   |
|   |   |   |   |   | 6 |  |   | 4 |
|   |   |   |   |   | 9 |  | 8 | 1 |
|   |   |   |   |   |   |  |   |   |
| 3 | 4 | 2 |   | 1 |   |  |   |   |
| 6 |   |   |   | 4 |   |  |   |   |
|   |   |   | 4 |   |   |  |   | 3 |
|   | 9 |   |   |   | 5 |  |   |   |

정답

|   |   |   |   |   |   |   |   |
|---|---|---|---|---|---|---|---|
| 1 | 9 | 7 | 2 | 5 | 8 | 3 | 6 |
| 2 | 3 | 8 | 9 | 1 | 6 | 5 | 7 |
| 9 | 2 | 6 | 8 | 7 | 3 | 1 | 9 |
| 7 | 1 | 3 | 2 | 4 | 9 | 6 | 5 |
| 8 | 2 | 7 | 6 | 5 | 1 | 9 | 7 |
| 9 | 6 | 5 | 7 | 3 | 8 | 2 | 1 |
| 6 | 9 | 2 | 3 | 9 | 7 | 8 | 1 |
| 2 | 8 | 9 | 1 | 6 | 7 | 3 | 5 |
| 3 | 7 | 1 | 9 | 8 | 2 | 5 | 6 |

|   |   |   |   |   |   |   |   |
|---|---|---|---|---|---|---|---|
| 9 | 7 | 2 | 5 | 8 | 3 | 6 | 1 |
| 5 | 3 | 2 | 1 | 9 | 6 | 7 | 8 |
| 1 | 8 | 6 | 2 | 3 | 7 | 2 | 9 |
| 2 | 6 | 5 | 8 | 1 | 9 | 7 | 3 |
| 2 | 9 | 7 | 3 | 5 | 2 | 6 | 1 |
| 3 | 1 | 8 | 7 | 6 | 2 | 5 | 9 |
| 7 | 2 | 3 | 9 | 8 | 5 | 1 | 2 |
| 8 | 2 | 1 | 6 | 7 | 3 | 9 | 5 |
| 6 | 9 | 2 | 2 | 1 | 8 | 3 | 7 |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argo9.com>

오늘의 운세

1월 25일 (음 1월 4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손님이 환운을 받으니 기쁨이 넘친다. 48년생 친구들과 맛집에 가서 맛있는 점심을 먹는다. 60년생 후한 끝은 있어도 박한 끝은 없다. 72년생 아둔한 나를 탓하고 상대를 배려해야. 84년생 지친 친구에게 따뜻한 격려를.

37년생 망설임이 행운을 차는 결과. 49년생 자존심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 61년생 구설수가 있으니 새로운 만남에 삼각관계를 조심. 73년생 노력한 만큼 성과도 놓으니 게으름 피우지 말고 전진. 85년생 순조롭지는 않아도 진행을.

38년생 열정과 희망이 넘치는 하루. 50년생 문제가 어려워도 잘 풀어나갈 운. 62년생 같은 땅 같은 씨라도 꽃이 피는 시기는 다르다. 74년생 첫 손가락에 배가 부르지 않으니 기다리자. 86년생 기대가 크면 투지도 그만큼 발생한다.

39년생 자신밖에 모르던 배우자가 마음의 문을 연다. 51년생 만나는 즐거움을 좋아하다 망신을 당할 수 있다. 63년생 마음 둘 곳을 모르고 방황한다. 75년생 보기에겐 멀쩡하나 속상함. 87년생 하늘의 이치는 누구나에게 공평한데.

40년생 시샘하는 사람이 많으니 주의. 52년생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날 일이 없다. 64년생 옆에 있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도리. 76년생 젊이 싫으면 중이 떠나면 그만. 88년생 직장일이 바빠도 공부를 향상시켜나간다.

41년생 이사는 가족끼리 모여 지혜를 모으도록. 53년생 미움과 따돌림 하는 마음을 접어야 내가 편해진다. 65년생 병도 약도 다 내 탓. 77년생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리나 복병이 있으니 주의. 89년생 즐거워지니 재물도 늘어난다.

42년생 매매문서는 잘 살펴라. 54년생 생활 속의 사랑에는 신비한 마력이 일어난다. 66년생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다 놓칠 수 있다. 78년생 좋은 인연으로 새로운 거래가 생긴다. 90년생 조금하다고 서둘러서 될 일이 아니다.

43년생 누군가를 미워하면 내가 지친다. 55년생 가족 간의 다툼을 피하고 양보하는 것이 좋다. 67년생 상부상조하는 것이 이익을 가져온다. 79년생 진로수정은 신중하게 해야. 91년생 운이 열려 운수대통이니 하고 싶은 일을 해보라.

44년생 내가 건강해야 집안이 화목해지는 순서이다. 56년생 가정이 화목해야 일이 잘 풀린다. 68년생 정상으로 오르는 것은 순식간. 80년생 언제나 마무리가 가장 중요하다. 92년생 연인을 만나도 일시적인 감정은 자제를 해야 할 듯.

45년생 발전이 느려 답답하나 현상 유지가 오늘은 최선. 57년생 운이 호전되어 금전과 사랑이 따르는 하루. 69년생 외출 시 이물자를 조심. 81년생 일시적인 감정으로 임방아에 오른다. 93년생 고물가든 언제나 균등한 기회는 오키미런.

46년생 걱정이 해소되고 마음이 평화로운 날. 58년생 이해를 바라지 말고 상대를 잘 설득하라. 70년생 외나무다리에서 원수를 만난다. 82년생 자책하지 말고 스스로를 칭찬하자. 94년생 성장과 풍요의 상징인 토끼처럼 일어설 수 있다.

47년생 변화의 운이 있으니 망설이지 마라. 59년생 약간의 먹구름이 끼었으나 곧 해소. 71년생 독존적인 사고로 사람을 잃을 수. 83년생 장래를 위해 적금을 드는 것이 좋겠다. 95년생 미래 성장 동력은 현재 자기 실력을 배양하는 길.

## 김상회의四季

삼재



한 해가 시작되면 마음은 바빠진다. 무엇보다 새로운 기대로 시작되기 때문이다. 올부터는 행정나이가 발효됨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나이가 일괄 하향되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행정 나이는 도처에서 실질적으로 사용되고 있었기에 흔히 말하는 한국 나이는 관습적 나이로서 일종의 시간의 인식에 대한 문화차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서양 사람들은 태어난 그 순간부터 나이를 세지만 음양오행을 따지는 정서에서는 산모의 태중에 입태하여 있는 열 달도 생명의 시원으로 보기에 태어나자마자 한 살을 치게 되는 관습적 문화이다.

만물을 예측하는 차원에서 사주학은 육십갑자로서 생년월일을 규정한다. 물론 음력이라 할지라도 태어난 월을 적용할 때는 태양력에 기준을 준 절기를 준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매화역수에서는 절기 반영을 하지 않고 태음력을 그대로 적용하여 감명을 하며 일부 역학자들은 태양력의 절기를 접고 그냥 음력 월을 기준으로 사주감명을 하기도 한다. 왜냐면 태양력은 근대 이후 서구 세력이 강대해지면서 도입된 역력이기 때문이다. 태양력 이전에는 음력이 기준이었기 때문이다.

태양력을 준용하여 발생한 것이 양력 2월 29일인데 4년에 한 번 오는 29일 생일의 문제는 태음력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삼재(三災)란 태음력에서 보듯 사람들이 9년 주기로 맞이하는 인생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시기를 일컫는 용어이다. 삼재는 태어난 해인 띠를 기준으로 따지는데 9년이 지나가는 시점부터 3년간 각별히 이런 저런 재난에 노출된다고 본다. 이를 통틀어 삼재팔난이라고 부른다. 삼재에 해당하는 각각의 해를 들삼재 놀삼재 날삼재라고 칭한다. 계묘년에는 원숭이띠 쥐띠 용띠가 삼재 2년차로서 놀삼재가 되니 사건 사고 없기를 바란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http://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             |                                 |                   |     |
|-------------|---------------------------------|-------------------|-----|
| 발행·편집인      | 이장규                             | 편집국장              | 김승중 |
| 인쇄인         |                                 | 중앙일보(주)           |     |
| 광고문의 / 독자센터 | 02)721-9851, 9826 / 02)721-9861 |                   |     |
| 일간 메트로      | 서울 가00206                       | 2002년5월28일 제5113호 |     |
| 일간 메트로경제    | 서울 가50111                       | 2017년3월09일 제1217호 |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